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신계숙
배화여대 전통조리과 교수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데 돌아보니 나는 때 순간 숫자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살아왔다. 공자는 열다섯에 학문에 홀로 서서 나를 책임질 수 있게 되었으니, 사십에 불혹하였고, 오십에는 지천명하였다. 육십에는 누가 뭐라고 해도 귀에 거슬리는 일이 없다 하였고, 칠십에는 마음 가는 대로 해도 법과 도덕에 저촉됨이 없다고 했다. 그런 공자처럼 나도 그렇게 나이를 먹고 살아오는 과정에 큰 의미를 부여하였다.

심지어 나는 열다섯에 서울에서 서울로 유학을 왔고 삼십에 홀로 서서 나를 책임질 수 있게 되었으니, 공자의 삶의 형태를 닮았다고 스스로를 위안하기도 했었다. 나는 고뇌로 가득 찼던 20대를 중국집 주방에서 보냈다. 더운 여름에는 그 흔한 선풍기 한 대도 없이 안팎에서 더해지는 열기를 견뎌 내야 했다. 겨울에는 난로 하나 없이 북아지는 요리의 온기로만 추위를 녹여야 했다. 폭풍한설이 몰아쳐도 새벽에 나가 장을 보는 일은 언제나 나의 몫이었다.

함께 해요! 2060

삼십여 년이 지나 나이 육십을 눈앞에 두게 되면서, 치열하게 살았던 내 청춘의 시절로 다시 한 번 돌아가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였다. 그래서 나는 20대 청춘들과 함께 하는 중국음식점을 열기로 마음먹었다.

주위에서는 모두 하던 것도 그만두어야 할 나이 육십에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고 만류한다. 하지만 나는 굳은 의지 하나로 절차를 밟아 나갔다. 이 시대는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에 관망한다. 청년들의 창업을 돕고 지도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창업해야 했다. 선결 과제였던 창업을 하고, 2030청춘들을 찾아 나섰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20대 청춘 함께해요'를 외친 결과 20세, 24세, 25세, 27세, 29세의 청춘들로 팀이 짜였다. 주방에서 일하다가 '거기 양재기 하나 줘 주세요' 했더니 '양재기가 뭐예요?'라고 묻는다. 그는 20세다. '마늘을 찢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라고 묻기도 한다. 살면서 감자를 담글 일이 없었을 터이니 모르는 것은 당연하다. 사물 하나를 놓고도 60대와 20대가 그것을 부르는 명칭이 달라서 발생되는 일인데, 오히려 함께 웃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도 한다.

서점에 갔더니 MZ세대를 이해하는 방법에 관한 책이 몇 권 나와 있다. 책 두어 권을 샀다.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그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소통해야 하는지, 책을 읽으면서 학습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개업하기로 잡아 놓은 날이 하필이면 올 겨울 들어

가장 추울 것이라는 일기예보가 나온다. 2년 동안 우리를 힘들게 했던 코로나19에 설상가상으로 오미크론까지 겹쳤다. 연일 확진자가 증가하다 보니 사회적 거리두기는 다시 단계가 격상됐다. 4인까지만 모임 수 있고 영업시간이 9시까지로 확정돼 외식업은 또 직격탄을 맞게 됐다.

나는 지금 외식업 개업을 앞두고 있으니, 작은 쪽배에 청춘들의 꿈만 가득 싣고 악천후의 망망대해를 향해 출항해야 하는 선장의 마음이다.

막상 출발하려니 풀기 어려운 난제들이 많다. '라떼는 말이야'로 들릴 수도 있겠다. 나 때는 요리를 배우기 위해서 배우는 것에만 집중할 수 있었다. 그래서 '라떼'는 전문기도 배출해 냈고 장인도 만들어 냈다.

지금은 일주일에 52시간만 일을 하라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52시간은 일하기도 바쁜 시간이다. 젊었을 때 더 많이 배워 두려면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고 싶은데, 그러려면 업무외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니 무엇을 어떻게 해 줄 수 있을까 고심이 된다.

노동을 하는 사람이 노동에 따른 만큼의 대우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 다고 한 만큼 미래를 위해서 스스로 몰두하고 배울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는 예외 조항도 필요하다고 본다. 법은 양쪽 모두가 좋다고 느껴야 좋은 법이다. 새해는 새로운 소망으로 모두 함께 행복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해 본다.

종교칼럼

기고



김원영
광주원음방송 교무

'물 쓰듯 한다'는 말이 있다. 귀한 것을 함부로 할 때 흔히 하는 말이다. 그러나 생수를 구매해서 먹는 이 시기에,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가 되리라고 경고하는 것을 들으면 이제 물은 부담 없이 함부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닌 듯하다. 팔타원 환경신행(원불교 여성 10대 제자 중 상수제자이자 수달장자)이 대중사님(원불교 창시자)을 모시고 서울 외곽에 나들이 갈 때의 일이다. 때는 초여름쯤이었다 보다. 가다가 냇가에서 쉬게 되었는데, 팔타원이 냇물에 세수를 하고 나니 대중사님이 "정신행! 그렇게 물을 함부로 쓰면 되나. 아무리 흔한 물이라고 함부로 쓰면 물 귀한 곳에 태어나게 된다" 하고 일러 주셨다 한다.

흘러가는 냇물을 함부로 쓰는 것과 아껴 쓰는 것이 그 방법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을지 싶기도 하고, 팔타원이 상수에 벗어나게 물을 오염시킬 일도 없었을 것 같기는 하다. 더욱이 팔타원의 집안은 당시 의식주에 구애됨이 없을 만큼 상당히 부유했다고 한다. 그러한

지속 가능한 소비

팔타원에게 흘러가는 냇물을 쓰는 것을 경계하신 뜻은 아마 전지만물을 더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며 아끼라는 가르침이었으리라.

요즘 주변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보면 물만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귀하다는 밥도 함부로 한다. 수리나 라에서 한 해에 버려지는 음식물을 값으로 치면 수십조 원이나 된다고 한다. 지금도 세계 도처에서는 기아나 기근으로 굶주리는 사람들이 셀 수 없이 많고 북한만 해도 몇 년째 식량 부족으로 고통 받고 있다. 유니세프의 보고에 의하면 7초마다 한 명의 어린이가 영양실조나 굶주림으로 죽어간다고 한다.

옛날 우리가 자랄 때는 밥알 하나만 상에 떨어뜨려도 야단을 맞았고, 하수구에 밥알이 나가면 복이 달아난다고 꾸지람을 들었는데 언제부터 우리가 밥 귀한 줄 모르고 그렇게 함부로 하게 되었는지 모를 일이다. 과연 이렇고도 복을 받을 수 있을까 걱정이 된다. 식량이 남아돈다고 야단들이지만 실상 전체적으로 보면 곡물이 남아도는 것도 아니다. 육류 소비가 늘고 빵이나 밀가루 소비가 늘면서 쌀 소비가 감소하고 거기에 값싼 외국쌀을 들여오고 있어서 식량 자체가 남아도는 것 같지만 밀이나 콩, 사료용으로 들어오는 곡물까지 합산해 보면 생산량은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물도 함부로 하면 물 부족으로 고통 받는다 했는데 귀한 밥을 함부로 하다가 당하게 될 고통이 어떨까 생각하면 심히 염려가 된다. 물과 밥만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다. 기름

도 함부로, 종이도 함부로 모든 것을 흥정망정 쓴다.

개인만이 그런 것이 아니다. 기업들도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린 워시(Green Wash)라는 말이 있다. 기업이 실제로는 환경에 유해한 활동을 하면서 마치 친환경적인 것처럼 광고하는 행동을 말하는데, '녹색 분할'이라고도 한다. 기업 감시단체인 코프 위치는 매년 지구의 날(4월22일)에 맞춰 그린 워시를 행한 기업에 상을 수여한다고 한다. 녹색 이미지의 광고 화면이 그 기업과 관련이 없는 경우, 환경친화적 사업보다 이를 광고하는 비용이 더 많은 경우, 주력 사업이 아닌 주변부의 안전한 사업을 선전하는 경우, 환경보호 정책에 동참하는 듯 말하면서 화석연료 사용 감소와 대안 에너지 개발에 대한 투자가 미미한 경우 등을 그 대상으로 한다.

이제 대중을 기만하는 그럴듯한 속임수는 자신과 기업 그리고 환경까지도 파멸로 이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그린 뷰티'라며 그럴싸하게 사람들의 생각을 현혹하는 행위를 이제는 멈춰야 한다. 그렇다. 아끼고 고쳐 쓰는 일이 불편하고 갑갑하기는 하다. 그렇다고 모든 것을 편리한 대로 하다 보면 과연 이러한 소비생활이 얼마나 계속될 수 있을까? '지속 가능한 발전'은 요즘 환경과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화두다. "이 세상에는 모든 인류가 살아가기에 충분한 물질이 있다. 하지만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을 만한 물질은 없다"고 한 간디의 말은 길이 새겨야 할 교훈이다.

'늙어 가는 것'과 '함께 살아가는 것'

표된 OECD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43.4%(2018년 기준)이고 노인 자살률은 53.3명(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으로 OECD 국가 중에서도 압도적 1위다. 한국 사회에서 늙어 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는 재앙과도 같다. 이런 재앙을 만나지 않기 위해서 이례라도 한국 사회에서 '늙어 가는 것'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아름다울 수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프랑스는 은퇴를 기준으로 노인을 구분하지 않는다. 프랑스는 제3의 나이와 제4의 나이로 노후를 더욱 세분화해서 구분하고 있다. 제3의 나이는 은퇴를 한 연령층으로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활발한 사회활동을 하는 이들을 일컫는다. 제3의 나이에 있는 노인들은 프랑스에서 가장 행복한 연령층이자 가장 중요한 소비 계층으로 꼽힌다.

한편 제4의 나이는 초고령자들로 홀로 생활하기 어려운 신체적인 어려움이 많은 이들을 말한다. 중요한 것은 프랑스 노인들은 자신의 노후를 독립적으로 살아가는데 있어서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이 없다. 프랑스 통계청(INSEE)에 따르면 2018년 프랑스 빈곤율은 약 8%이다. 하지만 65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은 3%다. 이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는 프랑스 노인들은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다. 그리고 그 자식들도 부모 세대와 같은 노후를 보내고 싶어 한다. 이렇게 자식들이 부러워하는 부모들의 노후는 기본적으로 사회보장제도를 통해서 이뤄지고 있다. 프랑스도 우리나라와 같이 젊은 세대가 노인 세대를 부양해야 하는 부담이 점점 증가하고 있지

만 이로 인한 세대 갈등은 크게 없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노인 부양에 대한 사회적 부담 증가로 인한 세대 갈등이 발생하고, 최근에는 일자리를 두고 청년 세대와 노년 세대의 갈등도 불거지고 있다.

한국 노인들은 경제 성장 중심의 사회에서 자신보다는 가족 중심의 삶을 살아왔다. 때문에 이들은 경제활동 이외에 자신을 위한 삶을 준비할 틈도 없이 노인이 되어 버렸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노후의 긴 시간을 즐기기에 경제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어려움이 따른다. 이러한 한국 노인들의 노후 여가문화는 '낮은 자기 결정권' '비소비 형태' 그리고 '집단지침'의 특징을 갖고 있다. 즉 한국에서 늙어가는 것은 경제적으로 어렵고, 문화적으로 빈곤해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럼 우리 무엇을 해야 할까?

그 좋은 예를 프랑스 사례에서 찾을 수 있다. 프랑스의 노인들이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것은 지금의 노인들이 개인적으로 은퇴를 잘 준비한 것보다는 긍정적인 노후의 삶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세대간 갈등이나 노인 부양에 대한 부담을 누가 짊어질 것인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의미다. 노인들을 바라볼 때 나보다 조금 더 빨리 태어났을 뿐 미래의 나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면 미래의 나를 위해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시작할 때이다. 홀로 늙는 것보다는 더불어 살면서 늙어 가는 것이 더 행복하지 않을까? 미래의 행복한 노후를 지금의 노인 세대에 서 찾을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한다.

社說

'일단 멈춤'은 짧게 '손실 보상'은 빠르게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인해 코로나 19 확진자가 급증하자 정부가 45일 만에 '일상 회복'을 중단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화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 본부는 어제 사적 모임과 시설 이용 추가 제한을 골자로 한 방역 강화 방안을 발표 했다.

이에 따라 내일부터 전국의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은 최대 4인으로 제한된다. 영업시간은 식당과 카페는 밤 9시까지, 영화관과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은 밤 10시까지만 허용하게 된다. 이로써 지난달 1일 '단계적 일상 회복' 조치를 시행한 지 45일 만에 긴급 '일단 멈춤'에 들어가게 됐다.

정부는 이 같은 조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8000여 명에 육박하고 위중증 환자도 1000여 명에 달할 정도로 확산세가 무섭기 때문이다. 지난 6일부터는 사적 모임을 6~8명으로 줄이고 방역패스 등 특별 방역대책을 시행했는데도 성과를 내지 못한 것 역시 이번엔 추가 조치를 내놓

은 배경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일상회복 후퇴가 아닌 속도 조절을 위한 '잠시 멈춤'이라고 강조하면서 이 기간 동안 국민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적극적인 백신 접종 참여로 화답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일반인들은 조금 불편하겠지만 일상에 타격을 받을 정도는 아니니 당연히 정부의 방침에 협조할 필요가 있다. 다행히 청소년 대상 학원의 경우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문제는 짧은 일상 회복 기간을 경험하고 연말 특수를 기대했던 자영업자들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런 점을 감안해 방역조치 강화에 대해 사과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따라서 이제 말로만이 아니라 직접 피해가 예상되는 이들에 대한 선제적인 손실 보상에 나서야 한다. '일단 멈춤'은 최대한 짧게 하고 영세 자영업자들에 대한 손실 보상은 최대한 빠르게 그리고 두텁게 해야 할 것이다.

'실습 고교생 사고' 현장 온통 불법이었다

직업계고 고교생이 목숨을 잃은 현장실습 사고가 결국 '인재' (人災)였던 것으로 수사 결과 다시 한 번 확인됐다. 검찰의 공소장에는 온갖 불법이 나열돼 있었다.

여수해양과학고 현장실습생 홍정은(18) 군의 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최근 재판부에 제시한 압제 대표 A(49) 씨에 대한 공소장에는 산업현장의 불법과 안전불감치 고소란이 담겨 있다. 검찰은 A씨를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공소 내용을 보면, 여수시 웅천친수공원 요트정박장 해상에서 현장실습하던 홍군은 비상기체통과 수중압력계 등 기본 안전 장비도 없이 작업에 투입됐다. 또한 체중의 10%가량 되는 납벨트(6kg)를 착용해야 하지만 헬신 무게는 11.3kg짜리 납벨트를 차고 들어가 변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잠수 작업을 해서 안 된다는 규정도 무시됐다. 홍군은

지난 10월 6일 A씨 지시로 수영복에 장갑만 착용하고 바다 속 1m까지 잠수, 요트(7t) 바닥에 붙은 띠개비를 스크래퍼로 긁어내는 작업을 했다. 이 과정에서 2인1조 잠수 작업 등 안전수칙도 지켜지지 않았다. 홍군은 잠수 작업에 필수인 비상기체통도 받지 않았고 수중시계·수중압력계·칼 등 제공받아야 할 스쿠버 장비도 없이 작업에 투입됐다.

이번 사건은 불·탈법이 만연한 일터에서 목숨을 걸고 일하는 직업계고 학생들의 참담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 주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 당국은 현장실습 대상 일터에 대한 철저한 안전점검과 감독 강화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 현장 실습에서 임금과 노동 착취나 인권 유린 행태가 없는지도 살펴야 한다. 그동안 시행한 대책의 허점과 문제를 철저히 보완해 다시는 학생들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언어가 아닌 것을/ 주고받으면서/ 이토록 치열할 수 있을까/ 침묵과 비명만이/ 극치의 힘이 되는/ 운동장에 가득히 쓴 눈부신 시 한 편"(문정희 시인의 '축구') 엇그제 있었던 2021 FA컵 축구 결승 2차전을 보면서 이 시를 떠올렸다. 대구 FC와 전남 드래곤즈가 맞붙는 경기.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면서 손에 땀을 쥐게 했다. 대회 사상 최고의 명승부였다.

두 팀은 무려 일곱 골을 주고받았다. '원정 다득점' 승리 방식이었는데, 풀이 터지는 순간마다 희비가 엇갈

렸다. 우승 트로피의 주인공이 시시각각 바뀌기 때문이다. 후반전 추가 시

간에 울린 주심의 페널티킥 휘슬은 최고 하이라이트였다. 관중들의 심장이 순간 멈췄다. 하지만 VAR 영상 확인이 이어지고, 페널티킥은 취소됐다. 이렇게 해서 전남은 FA컵 사상 첫 2부 리그 팀 우승이라는 믿을 수 없는 새 역사를 썼다.

축구에서 FA컵은 종종 기적을 만들어 낸다. 축구 역사의 아름다운 한 페이지를 장식한 이른바 '칼레의 기적'이 대표적이다. 2000년 프랑스 칼레의 항구노동자들로 구성된 4부 리그 팀이 리그 1팀을 연

파하고 준우승을 차지한 것이다. 국내에서도 2017년, 내셔널리그(3부 리그) 중위권 팀 목포시청이 K리그 성남FC에 완승을 거두면서 4강에 오르는 이변을 연출하기도 했다.

광주·전남 축구 팬들에게 올 시즌은 최악의 한 해라 할 수 있다. 광주FC는 K리그 1에서 최하위 성적으로 2부 리그로 강등됐고, 전남 드래곤즈도 4위에 머물러 1부 리그 승격의 꿈을 이루지 못했다. 하위 팀을 응원하는 팬들에게 즐거움보다 고통스

러운 시간이 많다. 돈과 시간을 투자해 얻게 된 절망이기에 더욱 그렇다.

그러나 기적적인 역전승을 거두면 모든 것이 용서되기도 한다. 이번 FA컵 결승전이 바로 그런 경기였다.

축구 시즌은 끝이 났지만 코로나의 끝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 이 지역에서도 오미크론 감염자가 속출하고 있다. 축구 경기가 열리면 그라운드는 90분 동안 그 무엇도 개입하지 못할 만큼 뜨겁게 달아오른다. 하지만 종료 휘슬 이후 어쩔 수 없이 돌아온 현실은 훨씬 더 가혹하고 치열하다. 축구 따위, 아무것도 아니다.

/유재관 편집장 jkyou@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김수진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영 지 원 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8005) (FAX 222-0195)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정 치 부 220-0632 예 향 부 220-0692
기획 관리 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FAX 222-0195) (FAX 222-0195)
경 제 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4
사 회 부 220-0652 체 육 부 220-0621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전 남 본 부 220-0642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